

학술지원 가뭄에 목타는 출판사들

학술출판기금 예산확보에 난항… 기업체들 지속적 지원사업도 기대

개정 저작권법 발효일(7월1일)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이 법의 적용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출판사들의 위기의식도 고조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 사망한 지 50년이 안된 저자의 모든 저작물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에게는 여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한 출판사의 편집장은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라캉, 테리다, 푸코, 아른하임, 들뢰즈 등 국내에 일정한 수요가 있고 비교적 활발하게 출간되던 책들이 거의 다 보호대상”이라며 “새롭게 보호해야 할 저자를 찾기보다는 보호 안해도 될 낡은(?) 저자를 찾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 못해

이에 따라 각 출판사나 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긴 하지만(본지 188호 참조), 개별 출판사만의 노력으로는 학술출판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발효일을 3개월 앞둔 현재까지 학술출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가시화되지 않아 학술출판사들은 더욱 목이 탄다. 학술출판사들이 기대를 거는 지원책은, 작년 11월 17일 개정 저작권법 국회통과시부터 출판계가 줄곧 요청해온 학술출판기금이다. 그러나 이 기금이 아직 예산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문화체육부 학술진흥과의 홍성훈씨는 “현재 학술출판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중에 있지만 예산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힌다. 문화체육부가 이미 신청해놓고 있는 기금이 한둘이 아니어서 재정경제원측에서는 ‘기금’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화체육부가 책정한 기금은 20억원. 이 ‘기금’ 형성이 어려우면 국고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늦어도 97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다.



도서관의 도서 구입 등 실질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지원책이 이쉽다.

문화체육부 산하 ‘도서관박물관’과 예산인 농특세같은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이 예산은 주로 농어촌 지역의 도서구입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서구입 시 학술도서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체부 추천도서에 학술도서의 비율을 높이거나, 장기적인 계획하에 공공도서관의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학술도서 수요의 확충에 얼마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금 형성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 문체부의 몇가지 방안들이 학술출판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문체부 관계자 스스로도 “특단의 조처가 있을 수 없다. 결국 출판사 자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대기업체와 학술단체들이 연계해 학술출판진흥에 함께 힘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말로 그 궁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출판금고 올해 지원예산 확정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난 학술출판 지원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의 학술출판 지원금으로, 1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출판금고의 이정수 부장은 “일단 예산은 확보됐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는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다”고 밝힌다.

현재 학술도서 전문 출판사로 꼽을 수 있는 곳은 약 20개사. 금고가 확보한 예산을

출판지원금으로 각 출판사에 지급한다고 했을 때, 대상 출판사나 책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그 액수도 많지 않아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렇다고 학술도서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운용할 경우, 구입한 학술서적을 기증하는 일이 조심스럽다. 가장 손쉬운 것이 도서관인데 그럴 경우 그나마 학술서의 주요 수요를 끊어버리는 일이 될 것 같고, 농·어촌의 경우 어려운 내용의 학술서를 읽을 사람이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출판금고 측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사진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이 지원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나 관련단체들의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식산업사, 문예출판사, 한울, 한길사, 나남, 일지사, 일조각 등 몇몇 학술전문 출판사를 중심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됐다.

이들 출판사 대표는 지난 1월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몇차례 더 모임을 갖고 학술출판 활성화를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모임의 형식이나 활동계획 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학술출판의 문제가 단순히 출판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 및 학자들에게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혹은 포럼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취재 수첩

숫자의 유혹

상대방의 시간을 잡아먹어가면서 너스레와 수다를 떨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제 용건은 3가지인데….” 혹은 “이 제품의 장점은 첫째, 둘째,…”.

요약되지 않은 긴 설명을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참을성도 없는 요즘 사람들에게 숫자는 관심을 환기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언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인지 요사이 나오는 책들의 제목에도 유난히 숫자가 많다. ‘101가지 전략’이니 ‘지혜 125가지’ ‘7가지 습관’ ‘10가지 조건’ ‘65장면’ ‘철학노트 196’ ‘인물 20인’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책 제목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지니는 힘은 크다. 그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은 꼭 펼

요한 정보들, 압축된 내용, 간단명료한 서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쁘고 받아들여야 할 정보의 양도 엄청난 요즈음의 독자들에게 이런 암시는 유혹적이다.

모든 책이 반드시 엄숙하거나 진지할 필요도 없고 길고 지리한 서술구조를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나 초기에는 성공학이나 처세서 등 정보위주의 책에 주로 등장하던 이런 제목들이 최근 들어 역사, 철학 등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을 요구하는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런 마음도 없지 않다. 역사나 철학에 대한 이해가 과연 몇 가지 장면이나 사건에 대한 해설, 몇몇 철학적 명제나 용어, 몇 명의 인물에 대한 이해만으로 가능할 것인가. 혹시 이러한 현상이 필자난과 원고난을 짜깁기 출판으로 매꾸려는 출판사들의 안이한 자세와 가볍고 알짜한 책으로만 쓸리는 최근의 독서경향과 맞물리는 일은 아닌가. —박남정 기자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원 발행 취업예정자 명단을 받아보지 못한 업체께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편집 취재기자로 첫발을!

개정저작권법 발효를 앞두고 학술 출판사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껏 출판계가 요청해온 학술출판진흥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인 결과가 없어 학술출판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은 “학술서의 경우 최소한 2천부 정도는 나가줘야 손익분기점이라도 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학술서들은 초판 1천부 정도 찍어봐야 연평균 500부 나가면 많이 나가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에게 선인세 1~2천불 정도 주고, 국내 번역자에게 번역료 다 줘가면서 책을 낼 만한 출판사가 몇이나 되겠는가”고 난감한 상황을 설명한다.

전사장은 “국내 학문발전이나 지식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학술출판이 현재 처한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로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측의 대책 마련이 서둘러져야 할 것을 촉구한다.

학술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들이 바라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은, 학술서의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가령, 주요 수요처가 될 만한 공공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이 책을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대해야

94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317개이고 대학도서관은 340개다. 도합 657개에 이르는 이 도서관에서, 국내에서 발간되는 학술서를 최소한 두권씩만 소화해준다면 학술출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 도서관의 평균 장서수는 28,238권으로 이는 말레이지아의 366,615권에도 크게 뒤지는 것이다. 예산 또한 7천7백56만6천원으로, 이같은 예산으로 도서관의 도서구입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 세계 10대 출판대국을 자랑하는 나라의 도서관치고는 너무

빈약한 실정이다. 결국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대폭 늘려 학술서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생산된 지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도서관의 도서구입 확대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기업체들의 지원이다. “문화의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가의 종체적 경쟁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신념”으로 지난 94년 기업메세나협회(회장 최원석)가 창립될 정도로 기업체들의 문화지원(메세나)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전체적인 문화지원 활동에 비한다면 출판분야는 아직 미약하기 짹이 없다.

한국기업메세나협회의 199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각 기업들이 문학을 포함한 출판에 지원한 건수는 37건(21억7천3백만원)으로 전체의 2.3%에 그치는 수치다. 음악 342건, 미술 212건, 문화시설 134, 연극 86건에 비해보면 그 미약함은 뚜렷해진다.

물론 삼성문화재단이나 대우재단, 연강재단, 대산재단, 서남재단 등 출판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없지 않고, 이들의 지원으로 출판된 책 중에는 이미 독자들에게 인지도도 높고 얼마간의 상업적 효과도 거둔 책도 있다. 그러나 문학, 출판 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학상 운영 등 문학부문에 치우쳐 있어 출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절실하다. 특히 상업성은 낮지만 우리 사회의 지식의 총을 두텁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학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메세나의 목적인 ‘국가의 종체적 경쟁력 창출’과도 직결되므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학술출판이 처한 위기는 일차적으로는 관련 출판사들의 위기다. 보다 참신한 기획과 아이디어의 개발, 필자 및 역사 발굴 등 출판사나름의 체질강화를 위한 노력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만으로도 태풍을 만난듯 흔들리는 우리 학술출판의 미약함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문화수준을 반영한다. 학술출판의 위기에 대한 우리 사회 공동의 대응이 절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

편집 교육을 국내최초로
시작한 교육기관

1987년 출판문화의 선진화
에 대한 확신을 갖고 편집
실무교육을 연구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편집실무교육
안과 교재개발을 완료하여
1988년 3월 국내 최초로
당국의 인가를 받아 전문
적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되었습니다.

“여자의 남자”의 저자
김한길님과의 대화

주최: 서울편집 디자인스쿨 협办: 경향신문연설부

강사와 학생간의 깊은
우대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출
판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에 대해 충분한 카운셀링
가 되어주고 있으며 교육
진행중 학생들과 담임강사
가 함께하는 1박2일 워크
숍을 통하여 편집인으로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장
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교육
는 완전히 배제

본격적인 출판편집실무교
육의 장으로 본원의 교육
성과를 인정하여 본원을
한국출판학회의 추천교육
기관으로 선정(89.1.30)해
주었으며 한국과학기술대
체험회에서는 편집인력의
지정 교육기관으로 위촉
(88.12.28)하였습니다.

각 반별로 담임강사가
진행

각 반별 담임 강사들은
“선배 편집인의 후배 교
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범한 교육내용 중 때
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를 초빙하여 강의가 이루
어지기도 합니다.

편집현장과 밀착된 교
육체계

출판현장에서 필요한 컴퓨
터 워드프로세서 교육과
출판사, 제책소, 인쇄소 등
을 전학하여 곧바로 실무
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
용을 정립하여 현장적응력
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료후 취업문제

본원을 수료하면 전원
100% 취업이 보장된다는
알락한 문구는 쓰지 않겠
습니다. 다만 수료생 전원
이 안정된 취업을 목표로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94년 5월 현재 총 수료
생의 95%가 취업되는 성
과를 올렸습니다.

과정별 잡지 단행본을
직접 기획 제작

체계적인 편집이론과 충분
한 실습을 거친 후에 잡
지, 단행본 등 기별 과정별
로 시판중인 잡지, 단행본
등과 동일한 수료작품집을
직접 기획 제작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전자출판
실무교육 실시

현직출판계 편집자나 처음
으로 컴퓨터 편집을 배우
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초보자일
경우는 본원 정규과정중
기본과정 이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
한 지식없이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서울편집학교

문의(代) 672-1841, FAX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출구방향 100m